

김한길·안철수 ‘새정치’ 화두 주도권 잡기

민주 전대 이후 야권 기상도는

김 ‘당내 혁신’ 안 ‘독자 세력화’ 관심

10월 재·보선 결과에 항배 좌우될듯

민주통합당이 김한길 대표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함에 따라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혁신’이 야권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강력한 혁신을 토대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서 4·24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등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한길 대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채택으로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강력한 체신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근 국회 입성 이후 세력도모를 모색 중인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차단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혁신 작업의 성과는 전대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 계파 간의 갈등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새 지도부가 혁신을 통

해 ‘계파의 벽’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다면 ‘안풍’을 잠재우고 야권의 중심 세력으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계파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당내에선 분열의 원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혁신의 연장선상에서 ‘새정치’라는 화두를 입법이나 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127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새 정치’를 현실화시켜 안철수 의원을 압박해 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대가 마무리됨에 따라, 안 의원의 점차 독자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내에 출범할 정책연구소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연구소를 매개로 정

은 물론 ‘새 정치’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경쟁관계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 의원은 오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즈음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호남 민심의 반응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곳에서부터 ‘안풍’이 다시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강동원 의원이 진보정의당을 탈당,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을 선택하고, 향후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이에 합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진영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사다. 대

체로 ‘제로섬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10월 재보선 이전까지는 ‘협력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한길 대표도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선(先) 자강론’을 내세운 바 있다. 혁신과 화합을 통해 민주당의 경쟁력을 강화한 뒤, 안철수 지지 세력과의 연대 및 통합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관계는 10월 재보선 이후, 급변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월 재보선 결과가 야권의 주도권 항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월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면서 야권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쏠린 ‘호남 정치’

지역 주자 김동철·우윤근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민주통합당이 지난 4일 전당대회에서 신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나자 이번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내대표는 단원직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서열 2위로 평가된다. 특히 원내 사령탑으로 제1야당의 행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전당대회 전부터 정치권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 경선은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며 후보 등록은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현재까지 3선인 김동철(광주 광산갑) 우윤근(광양 구례) 전병현(동작갑)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고,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고심 끝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대표 경선에서 수도권 출신인 김 대표가 당선되고, 선출직 최고위원단에도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인사가 배제된 만큼 원내대표 경선에

서 의원들이 지역적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광주에 지역구를 둔 김동철 의원과 전남에 지역구를 둔 우윤근 의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하지만, 지역 의원들이 분열해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호남으로 향하는 표가 갈리면서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동철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병현 의원 측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 게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므로 의원들이 지역보다는 대의 협상 능력과 정책 마인드를 더 중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노핵심’ 문성근 탈당

민주통합당 내 ‘친노(친노무현)’그룹의 핵심 인사인 문성근 전 대표권한대행이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3일 전격 탈당했다. 지난 4월10일 영화배우 멩계남씨가 민주당을 떠난 데 이어

당내 친노 핵심인사로는 두번째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저 문성근은 민주통합당을 떠난다. 그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끌어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미리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절반의 성공’ 이용섭

재선 의원 과감한 정치적 도전 불구 아쉬움 남아

지역정치권 방관 속 한계…지역구 포기 공약 주목

이용섭 의원(광산 을)의 정치적 도전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재선 의원으로 당권 도전에 나서 3선의 강기정(북구 갑)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는 등 막판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역 정치권의 기대를 모았지만 판세를 뒤엎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밀리고 있는 호남지역 의원으로 과감하게 당대표 경선에 나서 선전했다는 자체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해 세력 교체에 원하는 전반적인 민주당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이 의원의 정치력 및 리더십 부족도 패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단일화 대상인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공개 지지에 나서지 않은 점을 두고 지역의원들에게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

한 이 의원에게도 문제는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류와 비주류에 속하지 않은 중도 진영의 지원도 생각만큼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관료 출신에 재선이라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의 리더십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범주류로 묶이면서 ‘바람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맏집지 못했던 단일화도 패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감한 혁신을 매개로 감동적인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판세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점도 ‘진정성’ 측면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막판 ‘대표로 선출된

다면’이라는 전제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불출마 카드를 꺼냈지만 ‘악발’은 별로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표 경선 패배로 그동안 광주 정치권의 기대주였던 이 의원의 정치적 기반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호남 정치력의 복원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을 토대로 과감한 도전에 나선 이 후보의 정치적 결단은 평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김한길 대세론’의 눈치를 보며 이 의원의 도전을 방관했던 지역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력 교체에 요구가 근저에 깔린 당권 구도 자체가 이 의원이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그의 과감한 도전은 지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눈치보기로 일관한 지역 정치권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산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대한생명 구.한미쇼핑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충무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복/사/안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형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13호-결-306호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건물/상가 추가대출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전. 답. 나대지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부동산 취득자금
- ▶사업자금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요리
하는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홀직원 | 주방직원 | 파티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임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